

生産教育과 大學圖書館

金 容 灝

오늘날 우리나라의 20年間の 民主發達史는 試行錯誤의 力動的인 過程 속에서 온갖 葛藤과 生成을 持續해 왔던 것이다.

比較的 安定된 生活 속에서 삶을 營爲해 오고 있는 先進國에 比할수는 없을지라도 너무나도 差異가 많은 우리들의 現實을 直視해 불배 輸入과 模倣으로서의 消極的인 態勢로 부터 整備과 創造로서의 積極的인 이고도 主體性 있는 態勢를 갖추어야 할 重大하고도 貴重한 瞬間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더구나 人的改造와 더불어 物的改造를 促求하고 있는 韓國의 課題야 말로 20世紀의 새로운 大歷史의 時點 위에서 새로운 契機를 마련해 놓아야만 할 妥當한 精神的인 Renaissance의 時代라고 말할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大課業은 枝葉的인 方便이나 外形的인 表記만으로서 終結 지었다고 自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危險한 思想이요 또한 언젠가 崩壞와 混亂을 前提로한 前世紀的인 낡은 思考方式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모든 先進國의 歷史가 證明하고 있듯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受難을 甘受하여야 할 運命的인 位置를 逃避 아닌 忍耐과 勇氣로써 開拓하고 發展시켜 나아가며 永久히 保存해 가려는 計劃的인 이고도 生産的인 스스로의 改造와 아울러 意志를 決定하고 마침내 果敢한 實行으로 克服해 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回顧하던대 이 神秘로운 大自然의 光明은 人類의 文化를 通해서 만이 可能하였고 飛躍을 거듭하는 現代의 技術文化 또한 人智의 發達에 依해서 만이 可能하였음은 直接 間接으로 人類의 벗이 되고 大自然과의 橋梁的인 一翼을 擔當하고 있었던 文化財의 偉大性和 高貴性은 決코 等閑視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10餘年間的 우리나라 民族文化에 許多한 貢獻을 해온 大學教育은 靜的인 教材의 解醒이나 斷片的인 知識概念의 羅列과 習得만이 아니요 生動하는 廣範圍한 世界와 大自然을 舞臺로 하여 自主的, 自律的인 人間完成에의 길로 自己調整을 거듭해온 “피와 땀의 結晶”으로서의 所産物 이었음을 想起하여야만 할 것이다.

“살전 도야지 보다 굶주린 Socrates 가 되고 싶다.”의 命題가 바로 오늘의 大學教育의 至上目標이며 理念이라고 假定한다면 바야흐로 배움에 굶주린 온 거레에게 精神的인 鎮定劑가 되고 예비오제가 될수 있는 知的인 榮養센터로서의 大學圖書館의 活動과 實効가 어느때 보다는도 아쉬운 感을 禁치 못하는 것이다.

自身이 自身을 督促하고 環境에 順應해 가도록 啓發하며 改善해 갈수 있는 힘을 간직할수 있었을 때 비로소 다아같이 渴望하던 幸福의 溫床地가 이나라 이땅 위에 있게 될 것이며 보다 새롭고도 바람직한 民族文化의 創造가 期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教育의 結實은 大學圖書館의 施設과 運營 및 管理如何에 따라 左右된다고 할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곧 地域社會의 開發에 直接的으로 參與하고 있는 大學에서의 圖書館施設의 完備와 正常的인 機能의 發揮 및 利用度의 價値實現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見地에서 圖書館 運營의 正常化를 考察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緊急히 解決되지 않으면 안될 問題가 圖書館 運營委員會의 構成과 實際의 問題인 것이다.

一律的으로 適用할수 있는나의 問題는 앞으로 研究되고 批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教育活動을 中心으로 하였을때 教授들의 研究는 勿論 學生들을 위한 Guidance와 Curriculum 및 Course of study 등을 基本으로 하여 보다 効率的이고도 實用的인 方向으로 運營하고 管理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當然한 常識이 아닌가 한다.

아직도 幼年期로부터 少年期로 成長發達하려는 우리나라의 圖書館史는 重疊된 課題속에서 그 順序가 錯雜한 것으로 多少의 矛盾이 惹起되는 것도 無理 아닌 現實의 問題로서 首肯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圖書館에 對하여 根本的으로 理解를 하지 못하는 人的集團構成의 問題라든가 圖書選定에 있어 教授學生들의 要求가 全然 反映되지 못한채 어느 特定人에 依해서 數量和 種類만을 裝飾하려는 極히 非教育的인 姿勢로서 山積해 놓기만 한 死藏化의 事例라든가 利害關係에서 到來하는 過誤의 派生이라든가, 教授 學生들에게

利用하려는 徵求를 喪失하게 하는등의 일은 적어도 眞理探究를 生活信條로 하여야만 할 大學社會에서는 最少限으로 抑制되고 改善 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教育을 통한 社會改造와 改善이라는 現時點에서 본다면 오늘날 大學圖書館이 處하고 있는 使命이야말로 實로 重大大한 것이다.

單科大學인 경우 各科에서 選拔된 委員으로서 綜合大學인 경우 各大學 또는 學問 系列別로(人文系, 社會系, 自然系) 選拔된 委員으로서 學長, 總長을 中心으로 運營委員會가 構成되어 여기에서 事業計劃에 對한 實質的, 教育的인 論議가 있어야만 하며 決定된 모든 事項이 實務者로 하여금 運營과 管理面에 反映되고 執行되어 나아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圖書選定은 原則的으로 教授 學生들로 부터 要求되는 List 를 基準으로 하여 採擇되어야 할 것이며 收書過程에 있어서도 一般事務職員(庶務, 會計, 經理係) 아닌 圖書館人에게 專擔시키는 制度上的 體制確立과 責任者인 學長, 總長으로서의 關心과 調整 및 改善策이 併行하여야만 할 것이다.

現在까지의 우리나라 大學發達史를 살펴 보았을 때 外的인 施設이라든가 形式的인 量的發達로서 過度하게 肥大하였거나 肥大해 가려는 過程에 處해 있음은 自他가 共認하고 있는 點인 것이다.

어느 大學의 경우는 外的인 發展을 必要로 하는곳도 있겠으나 一般的으로 時急을 要하는 問題는 內的인 向上發展 卽 實用的 實質的인 面에서 運營되고 管理되어야 할 問題에 着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끔 있었다고 들려오는 一方的인 放任이나 無關心 또는 非協調的인 環境에서는 우리들이 다같이 期待하고 있는 圖書館의 正常化란 한갓 空想과 口實에 不過할 것이다.

研究活動의 資料集散地가 곧 圖書館이요, 모든 問題解決의 供給源이 곧 圖書館이요, 高適한 人間陶冶와 品性涵養의 보급자리가 곧 圖書館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大學教育의 綜合的이고도 生産的인 心臟部로서의 役割을 圖書館이 擔當하여야만 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社會의 口號와도 같이 외치고 있는 教育自治制는 韓國的인 口號일 뿐만 아니라 時代的 世界的인 口號인 同時에 우리들의 切實한 生活信念이며 社會理念의 部分的인 表現인 것이다.

어느나라 어느 民族史를 살펴 보아도 自主的인 政治活動이며 自立的인 經濟活動도 力動的인 教育活動에 依해서 만이 可能하였음을 再三 認識 하여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提示된 現實이란 모든 것이 하나

의 宿題인 同時에 教育的인 課題들인 것이다.

이것을 最短期日內에 最少限의 投資로서 最大限의 極致에 到達시켜 보려는 韓國的인 努力은 마침내 企業的인 分野에만 投資하기에 앞서 教育投資에 集中함으로써 實質的인 實効를 얻을수 있으며 모든 難題를 集大成 할수 있으리라고 確信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先行하고 重點的으로 다루어져야 할 問題는 小規模의 投資로서 眞正으로 最大多數人의 벗이 되고 삶의 燈불이 될수 있는 것은 大學圖書館에 對한 投資인 것이다.

大學教育은 眞理探究와 아울러 理想的인 指導者 養成을 그 本來的 使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社會가 어지럽고 家庭이 貧寒하여 彷徨과 不安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에게 한가닥의 期待와 希望을 가질수 있도록 作用하는것은 곧 學校라는 安息處요 教育이라는 힘일 것이다.

이것마저 그들에게 情緒的으로 慰安하고 思索 할수 있는 場所로서 提供되지 못한다면 民族的으로 커다란 損失을 免치 못할 것이며 國家的으로도 重大한 問題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偉大한 指導者며 優秀한 技術者 또는 實業家등 모든 人物들이 學校라는 곳에서 思索과 研究와 努力의 過程을 밟고 社會에 進出하게 되는것을 생각할때 綜合的이고 直接的인 研究資料의 供給源으로서의 圖書館施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그 얼마나 높은 것이며 學校施設中에서도 秋毫도 例外的으로 取投할수 없는 施設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國家의 굳건한 土臺와 民族文化의 再建은 教育에 對한 投資로 부터 始作되며 이 投資에 依한 理想的인 生産은 오로지 圖書館의 正常化에 依하여 左右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筆者 忠南大學校 教授)

☆ ☆ ☆

(20面에 繼續)

營爲하고 있는 우리社會가 만드려 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욱 努力하여 남과 같아지도록 해야 하고 生活에 파고 드러가서 우리社會가 必要로 하는 圖書館으로 자라도록 努力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끝